

화순 백신산업 인프라 구축 착착...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 화순 클러스터 조성지구 위치

- 생물약산업단지 조성사업
- 전남 생물약연구센터(GMP)
- 생물약품 완제라인 구축사업
- 백신제형 및 전달 시스템
- 생물약(백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녹십자 백신공장(GMP)
- 생물약 전임상연구소 건립사업
- 프라운호퍼(FHE) 한국연구소 유치
-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 화순전남대병원 운영
- 전남지역 암센터
- 임상백신연구개발 사업단 운영
-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사업
-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생물의약연구센터



녹십자



헬스케어연구소



2010년 전국 첫 백신산업 특구 지정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박차
연구개발·전임상·제조까지 원스톱
미생물실증지원센터 2021년 완공
아시아 백신 허브 도약 꺾걸음

화순이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석탄산업과 농업 위주의 산업활동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화순은 석탄산업이 사양화하고, 산업화가 가속화되자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으로 생물산업을 선택하고, 생물산업 연구센터(현 생물약연구센터)를 생물약산업단지에 설립함으로써 화순군이 생물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의 2005년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구축 사업으로 (주)녹십자가 선정됨에 따라 화순이 본격적인 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됐다.

■ 전국 최고 백신산업특구 지정

화순군은 지난 2006년부터 생물산업을 중심으로 생물약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암센터,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 진단과 치료, 휴양, 의료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백신을 생산하는 (주)녹십자를 비롯해 연구개발과 비임상, 임상, 시료 생산이 가능한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비임상 분야 전문기관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헬스케어연구소, KTR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임상(GLP), 임상(GCP), 제조에 이르는 인프라를 연결해 생물약산업단지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화순군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임상(KTR 헬스케어 연구소·290억원)시설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해 명실상부한 호남권 최대의 생물약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2010년 11월 전국 최초의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됐다.

■ 국내 첫 백신원액 공급... 신종플루 등 국가 위기 극복
화순은 의약품 연구 및 개발(R&D)은 물론 전임상, 임상,



이낙연 전남지사(오른쪽 두번째)와 구종근 화순군수(맨 오른쪽) 등이 백신산업 투자협약식을 하고 있다.

제조시설(GMP)의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의 중심지다.

생물의약산업단지내 녹십자 화순공장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국내 최초로 백신 원액을 생산·공급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 화순을 내평리 일원에 539억원을 들여 생물약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단지에는 녹십자 화순공장을 비롯한 생물약연구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주)녹십자와 1113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독감 및 수두 백신 등을 포함한 생산 가능 물량이 현재보다 2배 늘어난 1억도즈(dose·1회 접종

단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신 5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순군은 지난 2016년 12월 836억원 규모의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올해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단(재단법인)을 구성하고 실시계획 등을 추진하고 2018년 상반기 중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 착공할 계획이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2021년 완공되면 화순은 명실공히 백신산업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 백신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2016년 1회 개최한 화순국제백신 포럼도 올 하반기 개최될 예정이다.

■ 첨단 의료산업 메카... 의생명복합도시 탈바꿈

화순군은 특히 전남대 의과대학이 작년 9월부터 화순으로 이전하면서 화순발전의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125억원을 들여 전남대 의과대 학교 기숙사 건립에 착수하는 등 교수, 연구원 150명과 학생 500명이 이전하면 2019학년부터 화순 캠퍼스에서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의과대학이 화순으로 이전하면 화순군은 군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전국 최초의 군으로서 첨단 의료산업의 메카인 의생명복합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화순=나성종기자 nsj@kwangju.co.kr



동물대체시험센터 준공



전남대 의생명융합센터 개소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안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